

생태영농탐방

2005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유병연 | 대전충남녹색연합



친환경 농업,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라는 캐츠프레이즈를 내걸고 7월22일부터 8월15일까지 25일간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신리 왕피천 일대, 20만, 6000여 평에서 친환경 농업을 소재로 2005 울진친환경농업엑스포가 열렸다. 이번 2005 울진세계친환경엑스포는

독일,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비교적 오지에 있는 울진군이 의욕을 가지고 유치하였다. 충청남도에서 울진군까지는 크게 3코스로 갈 수 있다. 첫 번째는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삼척을 거쳐 7번 국도를 통해 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포항을 거쳐 7번 국도

를 타고 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중앙고속도로 영주를 거쳐 36번 국도를 타고 봉화를 거쳐 불영사 계곡을 지나 울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대략 대전에서 출발하면 왕복 12시간 정도 소요된다. 울진은 동으로는 동해바다가 있고 서쪽으로는 태백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어 비교적 외지인의 접근을 막아 왔었다. 또한 울진군은 태풍 루사, 태풍 매미를 연이어 수해를 당하여 수려했던 계곡들을 망가트리고 많은 절망과 실의

관, 한국관, 세계관, 농업기계 전시관, 해양생명관, 각종체험관, 세계품물관, 주공연장, 야생화 관찰원, 친환경농업 관찰원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친환경 농업관 영상과 판넬로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과 유기농업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친환경 농업관의 내용을 보고 스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많았다. 좀더 심화된 내용을



2005 울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Eco-Agriculture/
Organic Food Expo, Korea

를 주었다. 하지만 2005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맞아 어느 정도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울진이 국내외에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자리 잡는데 금번엑스포가 공헌 할 것이다. 울진은 또한 원자력 발전소가 많아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었는데 이를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친환경 농업으로 이미지를 심어 주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05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행사장은 친환경농업관, 친환경 농업문화관, 친환경도시

책자로 만들어 배포해 주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엑스포의 방문자 대부분은 각 지역에서 농업에 관련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새로운 지식과 경향, 국내의 흐름을 알기 쉽게 핸드북을 만들어 유료 또는 무료로 만들어 주어야 했다. 물론 뒤에 한국관에서 대학, 기업 등에서 자기와 관련된 리플렛 배포나 책자를 유료로 파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번 엑스포에서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한 장의 리플렛 뿐

생태영농탐방

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였고 때문에 차분이 살피 본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었다.

친환경 농업문화관은 우리 농업을 소개하는 곳으로서 영상, 특히 조선시대 농업 관련시설 및 서적, 누에코치 성장 과정 그리고 누에서 실을 추출하는 과정, 우리의 정원, 버섯의 성장 및 종류, 물레방아 등을 전시 하였다.

농업도시관은 도시의 아파트에서 기를 수 있는 채소와 정원조성 방법등을 소개 하였다.

한국관에서는 농업에 관련되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 산림청 등 우리나라 농업의 기술과 상품 그리고 각 자치단체의 특산물 및 관광홍보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특히 각 지자체의



홍보물에 대한 비교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농업에 대한 관심도도 알아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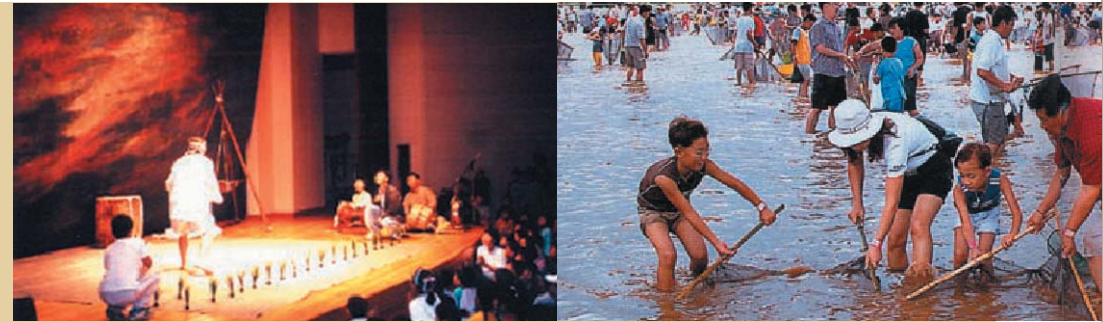
세계관에서는 각국의 농산물에 대한 홍보와 농산물 판매가 있었으나, 규모는 크지 않아 세계엑스포라는 대회 규모와는 맞지 않았다.

해양생명관에는 토종물고기와 다른 나라 물고기를 비교 전시하였으며, 해양연구원의 심층수 개발 등을 전시하였다.

각종 체험관에는 물고기(은어) 잡기 체험행사, 종이공예, 목걸이 공예, 목판화, 염색, 흙, 농산물 수확체험 등이 있었다. 이곳에서도 다양한 체험장 및 전시품의 부족을 느낄 수 있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많은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엑스포의 한 기능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볼거리의 빈약성은 지적되어야 마땅하다.

세계 동물관은 비교적 질서 있게 정돈되어 보기에 편하였다. 다만 이미 많은 외국인이 철수하여 국내 자원봉사자가 대치되어 세계엑스포라는 이미지와는 다소 부합되지 못했다. 하지만 외국관에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단순히 상품을 팔고 가는 그런 일이라면 없는 것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보는 즐거움이 있다.

주공연장은 매일 경북의 기초자치 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날을 정하여 농특산물도 소개하고 문화공연을 진행 하였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해주는 행사가 대부분이라 현대적인 이



△ 주공연장

△ 민물고기 체험장

미지의 부족도 느낄 수 있다. 전통과 현대를 같이 하는 행사가 되어야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것이다. 특히 자가지역 연예인들이 나와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였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을 것이다.

야생화관은 다양한 꽃들이 전시되어 야외에서 보는 느낌이 아름답고 좋았다. 특히 군데군데 설치된 조롱박 터널은 한여름의 더위를 식혀 주는 데는 안성맞춤이었다.

친환경농업 관찰원은 유기농 경작지와 같이 친환경 농업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리농법, 우렁농법 등으로 벼를 재배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유기농법을 보여주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었다.

결론적으로 2005 올진세계친환경엑스포는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우리의 기대와 달리 세계엑스포라기 보다는 국내 농업엑스포로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새로운 것을 제시하기에는 처음

부터 한계가 있었다. 다만 올진이라는 지리적 특성에서 세계엑스포를 개최하였으며, 전국의 농민들에게 환경농업을 알려 주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번 엑스포를 끝내고, 이곳이 우리 농민들을 위한 전향적인 시설로 재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엑스포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자료는 www.2005ofex.org에서 정보마당, 친환경 자료실에서 참조할 수 있다.

끝으로 이번 엑스포에 참가하지 못한 분은 내년 충청남도에서 "한국농업!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6벤처농업박람회가 2006.4.28-5.7(10일간)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21만평에서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하여 개최되는 2006 벤처농업박람회(www.avex2006.com)를 기대해 본다.